

경계에서 숨쉬는 색다른 가능성 <Inside OUT>

연세대학교 제 19대 총여학생회
inside-out@yonsei.ac.kr

그만 곤란하길 바래

2007 여성주의 새내기 OT



2007. 3. 3(토) 오전 11시

주관 2007 여성주의 새내기 OT <그만 곤란하길 바래> 기획단

주최 경계에서 숨쉬는 색다른 가능성 <Inside OUT> 19대 총여학생회

그만 곤란하길 바래

2007 여성주의 새내기 OT

Time Table

- 11:00~12:00 오프닝 Opening : 여성주의로 관계 열기
- 연애/섹스, 공동체, 여성주의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 12:00~13:00 맛있는 점심 식사!
- 13:00~15:00 프로그램 : 그만 곤란하길 바래!
- 5가지의 골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곤란 방지 대책 프로그램!
- 15:00~15:30 오후의 낮잠 혹은 요가 등등의 자기 나름대로 쉬는 시간
- 15:30~16:30 파이널 Final : 거침없이 폭로전 '이런 곤란한 것들!'

참가신청

자 우선 메일 보내 준비를 하세요

보내실 주소는 inside-out@yonsei.ac.kr

내 이름, 내가 소속한 학과 혹은 단대, 나의 학번, 나의 연락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 그만 곤란하길 바래! 외 5가지 프로그램 중

내가 참여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주세요!

메일을 보내셨다면 두근두근 3월 3일에 만나요. ^_^

! 여성주의 새내기 OT에서는 학번 불문, 성적불문 불문, 성별 불문 등등등 모든 학내 구성원들을 환영합니다. ^^

CONTENTS

- 02 • 새내기 OT 기초글 <그만 곤란하길 바래>
04 • 총여학생회 소개 및 1년 사업

오프닝 : 여성주의로 관계 열기

- 06 • 오프닝 Opening
07 • PART 1 연애/섹스 말하기
08 • PART 2 공동체, 공동체!
09 • PART 3 여성주의자로 산다는 것

프로그램 : 그만 곤란하길 바래!

- 10 • 호흡곤란 _ 격한 운동
11 • 방치곤란 _ 여학생 휴게실 꾸미기
12 • 소외곤란 _ 나를 응원하기
13 • 포름알데히드 곤란 _ 대안생리대 만들기
14 • 미초곤란 _ 남자친구들의 여성주의 수다
15 • 파이널 : 거침없이 폭로전 '이런 곤란한 것들!'

새내기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

- 16 • 절대 만만하지 않은 '반'이라는 녀석에 대한 단상
18 • 모두가 행복해지는 평등한 관계 맺기!
20 • 안녕, 공동체
23 • 이젠, 어쩌면 사랑이구나 싶은거, 그런거 있잖아요

홍보 : 19대 총여학생회 <Inside OUT!>의 색다른 가능성!

- 25 • 여학생 휴게실 개선, 장애 여성 운동, 레즈비언 운동 팀원 모집

소모임 소개

- 26 • 컴투게더
27 • 보자기
28 • 숙자씨
29 • 구공탄
30 • 기획단 후기
31 • Speak OUT



그만
곤란하길
바래



2007 여성주의 새내기 OT 기조글

그만 곤란하길 바라

곤란해도 괜찮아

대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즐거운 설렘을 동반합니다.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일상은, 학업에 찌들었던 지금까지의 생활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실제로 활동의 폭도 넓어지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만남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하지만 언제나 즐거울까요? 실은 난, '오펙'라고 부르라는 남자 선배들이 불편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은 내

친구는 짐승처럼 울부짖을수록 이름받는 FM이 두려웠어요. 누군가는 잘 모르는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는 용원이 싫었고, 술을 잘 못 마시는 누군가는 '달리는' 술자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누군가는 자신이 '새내기 여학생' 혹은 '새내기 남학생'에게 요구되는 모습에 맞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은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유난하고 예민한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나만 불편한 걸까?

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자체를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행복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양식을 억지로 쫓아가기를 강요당했을 때에 싫다는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란한 건 나쁘지 않아요. 곤란해도 괜찮아요.

여성주의 OT를 하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미 남성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대학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격할수록 사랑받는 용원, 늦게까지 남는 것이 권장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남자 선배들만 남는 술자리. 군대문화에서 유래했다는 FM까지. 지금부터 겪게 될 대학 생활은 남성중심적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내에는 '남성적'이지 못한 수많은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들의 겉보기의 성별이나 성정체성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그 안의 문화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반공동체에서 행해지는 OT는 기존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것이 구성원들의 일부를 소외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더라도 '대다수'라고 칭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의 방식이 강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침묵하는 것, 이젠 지겨워졌어요. 그래서 여성주의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방

식을 다르게 하여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놀이 문화를 탈피하여, 각자가 스스로에게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방식으로 놀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소외의 폭력을 겪지 않는 시/공간을 벌여놓아, 기존의 방식을 당당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시작도 있음을 보이는 OT를 하려합니다.

이제 그만 곤란하길 바라

딱히 응원해주지 않아도 승승장구 잘 나가는 학교를 응원하기보다는 때로는 우울하기도, 때로는 슬프고 아프기도 한 나에게 힘내라고 응원해 주고 싶었습니다. 여성주의라면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전에 거부감부터 드는 학우들, 여성주의 때문에 고민이 많이 생긴 학우들과 함께 신나게 떠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인 여학생 휴게실을 내 마음대로 재구성하고 싶었습니다. 월경을 하는 예쁜 나의 몸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든 얌전하고 조신하게 구두를 또각거려야만 할 것 같은 백양로를 마음껏 달려보고 싶었습니다. 곤란하지 않게,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내 목소리가 울리는 대로 웃을 수 있고,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춤출 수 있는, 마법같은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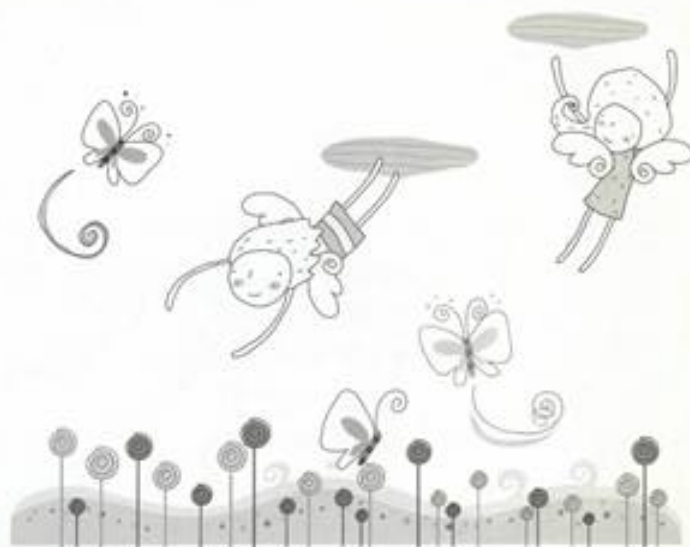
여성주의로 소통하는 우리들의 힘은 이미 움트고,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내 손을 잡고 있는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에, 우리에게 덧씌워져 있는 교묘한 억압들은 이내 힘을 잃어갈 겁니다. 여성주의로 나를 해방시키고, 각자 자유롭게 날아올라 나를 곤란하게 하던 것들에 안녕을 고할 겁니다. 그 당연한 곤란을, 웃고 노래하며 춤추며 즐거이 조롱하고 거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만 곤란하길 바라요. 함께 발랄하고 샤프하게 '시작' 해 봅시다. ■

by. 자몽

경계에서 숨쉬는 색다른 가능성, 〈Inside OUT〉

19대 총여학생회에서 찾은 색다른 가능성



19대 총여학생회는 '경계에서 숨쉬는 색다른 가능성'으로 Inside OUT 전복의 힘을 찾아내자는 모토로 여러분들과 함께 1년을 즐겁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는 많은 경계 짓기들이 존재합니다. 나는 남성인가, 아니면 여성인가. 나는 이성애자인가, 아니면 동성애자인가. 나는 비장애인인가, 아니면 장애인인가. 이런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가 자신을 소개할 때 염두에 두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경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차별과 억압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성인가, 아니면 여성인가. 그것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염색체를 타고났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 등등 너무 많은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남성이라면 언제든지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자신의 '본능적'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용인되며,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 노인, 어린이 등의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반면에 여성은 누군가의 딸, 아내,

며느리, 누이 등으로 종속된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의 존재를 부인하기를 강요받고, 모성 본능으로 보살핌 노동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남성과 여성은 단순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생애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경계 짓기 속에서 트랜스 젠더의 존재는 배제되어왔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 이분법적인 질문은 너무 많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성애자인가, 동성애자인가. 남성에게는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성에게는 "남자친구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이성애자세요?"라는 질문은 좀처럼 하질 않습니다. 다만 "동성애자인가요?"라는 질문들을 종종 연예 뉴스에서도, 수업에서도, 일상에서도 농담처럼 던질 뿐이죠.

나는 장애인인가, 비장애인인가. 우리는 무엇을 '장애'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비장애인과 얼마나 다른가가 '장애'라고 부르는 것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경계는 중심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주변부를 '비정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태도는 주변부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을 단순히 '동성'이나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중심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시각 혹은 주변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배제하려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시각은 호모포비아라는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시각은 장애인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받아들이려는 사회의 시각을 정당화합니다. 경계는 개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생긴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생긴 대로"에서 편견을 더하거나, 억압을 더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기 위해서 19대 총여학생회는 튼튼한 가시 울타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널따란 들지대처럼 풍요로운 경계에서 여러분과 함께 숨 쉬려고 합니다. ■

by_ 19대 총여학생회

Inside OUT!

2007년 한해 이런 일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체적인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레즈비언 운동

- ★ 이성애중심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드러낼 수 없었던 레즈비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화제(5월)를 열겠습니다.
- ★ 학내의 성소수자 단체를 지원하고, 외부 성소수자 단체와 연대하여 함께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장애 여성 운동

- ★ 학내 외의 장애 여성 운동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여성운동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 장애 여성의 교육권,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작으로 학내 장애인 시설의 실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함께 고민하기 위한 세미나, 다큐멘터리 상영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색다른 여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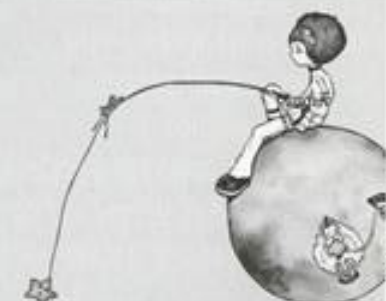
- ★ 여학생 휴게실의 시설 확충 및 개선과 함께, 여학생 휴게실을 여성주의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힘을 키우는 반성폭력 운동

- ★ 여성 스스로의 힘을 긍정하고 펼쳐낼 수 있는 적극적인 반성폭력 운동으로 학내에서 성폭력 피해 생존자 워크샵(8월)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 교육권 확보를 위한 교육 투쟁

- ★ 07년도 1학기에 진행되는 학교 측의 생리 결석제 시범 운영 이후, 생리 결석제가 정식 운영 및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학교에서 쉽게 여성학 수업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여성학 수업 개설을 요구하겠습니다.
- ★ 여학생 전용 체육 수업에 대한 선택권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여학생 전용 체육 수업 개설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체육 활동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여학생 샤워실 확충 역시 요구하겠습니다.
- ★ 이뿐만이 아니라, 등록금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야기해나가며, 부당한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서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축제로 만나는 여성주의

- ★ 여성주의를 통한 고민과 언어로 함께하는 〈여성주의 새내기 OT〉(3월)를 함께 하겠습니다.
- ★ 여성주의를 통해 마음껏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성제〉(9월)를 열겠습니다.

여성주의 나눔과 소통의 장

- ★ 학생회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주의 자치 도서관인 페미니리를 활성화하고, 페미니리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 ★ 여성주의 학교와 강연을 통해, 물리지 않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학내 여성주의 모임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여성주의 매체 발행으로 일상적인 가부장제 사회의 권력에 문제제기하고 학내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성주의 매체를 발간하겠습니다. ■

"그만 곤란하길 바래."
"에이~ 우리 사이에 무슨~"
영? 우리?
누가 우리야?

연애/섹스?
무슨 말을 듣길 원해?
넌 꼭 같은 질문만하더라.

난 이 공동체가 싫어! 싫어!
이제 유레카! 유레카! 처럼,
공동체! 공동체! 외칠래.
조금은 다른 이야기,
조금은 다른 공동체를 만나고 싶어.
내가 편한, 내가 만들어 나가는,
소통의 가능성으로 색다른 공간.

매스컴에서 떠들어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뭘까?
여성주의 말야,
여성주의를 알고 싶어.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여성주의로 관계 열기'

Opening

여성주의로 관계 열기

Part 01 연애/섹스 말하기

Part 02 공동체, 공동체!

Part 03 여성주의로 산다는 것



| opening : 여성주의로 관계열기



Part 01

여성주의로 관계 열기 : 연애/섹스 말하기

Interview

대학, 연애, 섹스, 이 세 가지 단어는 마치 한 묶음인양 가까운 것 같다. 적어도 지금 대학, 대학생활을 둘러본다면 말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자유'라는 단어로 대학, 연애 그리고 섹스를 함께 탐닉하기 시작한다. 대학에 와서,

그리고 질문들이 난무한다. 뻔하다 못해 뻔뻔한 질문들. "너 여자친구 있어?"

"너 아직도 연애 안하고 모하고 있어? 능력도 없다."

원래 질문에는 대답이 함께 들어있다고 했던가. 나는 '당연히' 이성애자여야 하고, '당연히' 연애를 해야만 한다는 질문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고 나면 속 들어 가버리는, 아무도 몰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연애, 섹스에 대한 이야기들.

연애를 하라는 강요와 연애에 대한 '당연한' 질문들은 그들이 강요하는 이성애 연애 관계에서도 사라지지 않

는다. 아니, 오히려 개인적 관계 맺음이라는 말 아래 더 욱더 여성, 남성애에 대한 강요는 확장되고 강화된다. 자신의 욕망은(그 중에서도 성욕은 더욱이) 꼭꼭 숨겨야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NO라는 여성의 말은 YES로 받아들이야 남자다운 거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우리의 연애관계라고 무엇이 다르겠는가.

연애, 남자가 나이가 많고, 욕망을 드러내고,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다른 말이 붙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연상녀, 욕망을 드러내면 밝히는 것, 주체가 되고자 하면 "아니,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말이 줄줄줄 덧붙여진다.

섹스, 일방적인 섹스가 마치 낭만인 양 그려지는 TV프로그램, 손잡고 키스하고 그러면 섹스까지-라고 말하는 각본들, 그리고 성기결합섹스만이 섹스라고 말하는 성기 중심적 섹스이야기들. 남성의 섹스에 대한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 폭력이 되어도, 남성이 스스로를 짐승으로 전락해도 그래도 편찮은 것 이라고 말하면서, 여성은 섹스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어쨌든 섹스의 '대상'이 되고 마는 가부장제 사회의 현실.

여성주의로 관계를 열어볼까말까 할 때, '사랑'이라는 낭만과 로망 속에서 여성주의는 더욱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기도 한다. 주체가 되지 못했던 나, 한 없이 그들의 연애 각본 속에서 움직였던 수동적인 나를 여성주의를 통해 알았을 때, 나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졌고, 다른 이야기들이 듣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 사회 속에 연애/섹스에 대해 듣고 싶은 말, 해야 하는 말들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 여성주의 관계 열기를 시작하고 싶어졌다.

이제 다만, 목소리를 알아본다.

"자, 여기 새내기, 정든대기가 있어. 여성주의로 관계 열기를 중점으로 네가 연애, 섹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질문이든, 대답이든, 한마디든, 약간 길든 간에." ■

by_ 우주

Part 02

여성주의로 관계 열기 :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이야기

힘들 때 옆에 누군가 있어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나의 고민을 다른 누군가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와 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나를 지지해주고, 생활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필
요하다. 그러기에 우린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에 소
속되고자 한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나를 곤란하게
하는 불편한 상황에 직면 했을 때, 소외감을 느낄 때,
내 옆 사람의 시선이 나를 회피할 때 더없이 힘들어진
다. 내가 나로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새터 OT이야기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접하게 되는 공동체는 과/반이
다.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끼며 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선배를 만난다. 하
지만 그 공동체의 첫인상이 항상 유쾌하지만은 않다.
힘들고 때로는 불쾌하기까지 한 FM을 시키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기도 전에 술 먹고 게
임만 하다가 '그제' 친해진 것 같다는 허무함이 들기도
한다. 또 억지로 적응하려고 하다보니 '내가 여기 왜 있
지?' 라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했다. 곤란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호칭문제

호칭은 서로의 관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호칭은 대부분 위계적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준
다. 누구는 반말을 하고 누구는 존대를
하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변
해진다. 나이권력, 학번권력,
성별권력에 따라 규정 내어
저버린 관계를 벗어나 새
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통
하는 사이가 되려면 호칭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나 자신을 표
현할 수 있는 이름(별명)을 만들어 '몇 학
번, 몇 살'이 아닌 '난 ~~~야'하고 자연스

럽게 자기소개를 하며 상호 반말을 하는 모임들이 있
다. 이런 경험처럼 상대방의 나이가 몇인가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좀 더 평등한 공동체를 구성해보는 것
은 어떨까?

과/반 안에서 또는 밖에서의 여성주의 소모임 이야기

곤란한 것들은 그만 좀 곤란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
내 힘으로 곤란한 것들을 바꾸고 싶다. 내 공동체인 과/
반에서 힘들어 쫓겨나가고 싶지 않다. 그 안에서 사람
들과 부대끼면서 내 불편함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그
리고 이런 고민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곤란한 것 없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었다. 과/반 내 여성주의 소모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 또 어디 없나? 이런 고민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과 동아리든 학회든 그냥 아무
거나 모임이든 과/반을 벗어난 여성주의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다. 여성주의로 함께 하며 서로 믿고 평등하게
나를 내보일 수 있는 공간 완성! 여성주의 모임~ ■

by_ssum

Part 03

여성주의로 관계 열기 : 여성주의로 산다는 것

뜨거운 감자를 통해 본 여성주의 맛보기!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문제는 사회적인 것이다. 사
회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것은 사회적인
것이다. 여성으로 산다는 것, 혹은 여성주의자로 산다
는 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눈을 가지길 요구한다.
우리는 가부장제가 관통하고 있는 사회에서 어떠한 여
성들과, 혹은 어떠한 여성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었나? 여성주의란 무엇이며, 이는 누구를 위한, 누구
의 사상이자 일상인가? 여성주의 이슈를 통해 여성주
의를 맛보자. 패널들의 양케이트로 진행되는 여성주의
좌담에 귀 기울여 주시길.

학교 안팎의 이슈

- 1 KTX 여성 노동자 1년 투쟁 - '땅 위의 스튜어디스'였던 그
녀들은 몇 백일을 농성과 선전전과 점거로 보내고 있다. 도대체
왜? 바로 불법 파견! 이는 단순히 KTX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
니다. 불법 파견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바로 여성노동
자인 현실, 이는 여성주의 문제 그 자체이다.
- 2 청소년 성폭력법 개정 - 청소년 성폭력이 이제 제 3자의 신
고가 가능하도록 되었다. 신고죄 폐지와 공소시효의 유치가 혁

심! 그러나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신고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
히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어 가해자의 협박으
로부터 신고가 자유롭지 않다. 또한 성폭력은 과거 기억을 재구
성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으로 추후 인지될 수 있기 때문에 공소
시효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

용어풀이
TIP

- 신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혹은 법률이 정한 특정인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3 이찬 성폭력 사건 -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찬 성폭력 사
건은 아내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라기보다 피해 여성을
 향한 비방, 동정을 가정한 선정적 보도,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것은 '이만영 논쟁이 범행이 된 사건' 이 아닌, 명백히
가해자의 일방적 폭력이라 '성 폭력이라는 점에서 가해자의 범
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이찬' 성폭력 무엇이 문
제인가?

4 최연희 성폭력 사건 - 금髮지를 달면, 뭐든 해도 된다. 성폭
력 까지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드물거리고 있는 국회
자본주의 국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국회를 맡기 어렵다.
그럼 누구 믿을까? 우린 어떤 힘을 장전해야 할까?

5 원장내 논란 - '평등에 집착하고 자신을 꾸미는 것에 많은 돈
을 허비하고, 허례허식의 취미를 향유하는' 이것이 바로 원장내!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 자체가 문제인 것을, 왜 굳이 '여성'
의 문제로 돌리시는 이유는?

학내 이슈

- 1 월경 공결제 - 월경은 '이 달의 경사스런 행사, 月慶' 일 수
없었다. 생리통은 개인이 알아서 참아야 할, 말해선 안 될 마법
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젠 아니다. 생리통이 심하면? 3
월부터 모탈에서 결석계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 2 컴퓨터대 중앙 동아리 가동률 - '년 여자, 년 남자!'라고 자
기 마음대로 정해버리고, '년 여자니까 남자랑, 년 남자니까 여
자랑 연애해야지!'라고 못 박아 버리려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
가기 힘들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곳을 주
목하자! 학내 이만 동아리 컴퓨터대가 수면위로 솟았다. 정기적
웹진 공개적 활동을 통해 심소수자의 목소리를 퍼트린다! ■

by_초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 털어서 내가 체육시간에 가장 많이 했던 일은 가만히 앉아서 수다 떨기. 물론, 수다 떨기는 언제나 재밌으며, 다양한 꿈의 나라를 펼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내가 다만 수다가 너무 좋아서 체육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었던 것은 아니다. 운동장에 8할쯤을 차지한 축구장은 남자 아이들이 모두 차지하고, 나머지 1할쯤을 차지한 농구장도 남자 아이들이 차지한 상태에서 나와 내 여자 친구들은 그닥 갈 곳이 없었다. 축구장이 비워있고, 농구장이 비워있다면 나는 뛰어놀았을까? 어렸을 때부터 손에 쥐어진 건 인형이었고, 길거리에서 하는 축구나 농구는 참여할 수 없었으며,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착한 '오빠'들 덕분에 '짜두기'로 이리저리 방황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도 놀고 싶었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공을 뱅뱅 차거나 던지고 싶었다. 그들의 눈에 '못 하는' 것 같아서, 배제되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은 채로 말이다.

놀자! 뛰놀자! 격하게 놀아보자! 오프사이드나 레이업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즐겁게 축구나 농구를 하고 싶다. 축구나 농구가 아니어도 좋다. 공 하나 던져줘도, 나는 신발 벗어던지고 신나게 놀 수 있다. 함께 할 그녀들이 있다면!

별 다른 규칙은 없다. 공 하나 던져줄 것이고, 신발 벗어던지고 놀 수 있게 이른 덧신 하나 제공할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녀들과 뛰놀수 있는 공간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대학교에서 우리 한번 호흡 곤란이 일어나도록 격한 운동을 함께 해보자. ■

by_삼어

호흡 곤란 _ 격한 운동



나을 때와 들어갈 때가 다른 그곳, 여휴

나는 아직도 처음으로 대학 정문을 들어설 때의 순간을 기억한다. 나에겐 입구 마당바닥에 정문 끝에서 끝까지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난 '아! 이제부터 이 선부터 이 선 안쪽, 저 끝도 안 보이는 대학공간이 내가 앞으로 생활 할 곳이거나, 더럽게 넓군. 하하' 하며 웬지 모르게 뿌듯해 했던 것 같다.

본격적으로 대학생활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내게 '있어도 좋다' (아니 '있어야 한다'고) 주어진 공간은 '반방'이라는 곳이었다. 아직 사람과 공간 모두가 낯설어서 긴장이 되긴 했지만 적을 둘 공간이 생겼다는 생각에 기뻐다. 강의실과 반방, 난 잘 모르긴 해도 이 두 공간이면 충분하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사람들도 사귀고 학교란 공간에 적당히 익숙해질수록 나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쓰는 공간에서 각자 또 모두가 편하길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 완벽한 공간은 없구나. 하다못해 '내 방'도 불편할 때가 있는데, 나는 완벽한 공간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공동생활구역이라는 모든 공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 할 지라도 분명히 더 편한 사람과 더 불편한 사람은 있다. 그리고 남성중심적 문화 아래서 이런 불편함은 여성들에게 더 쉽게 찾아온다. 마치 '공동' 화장실에서 여성인 내가 대부분의 그남들과 달리 소리조절에 민감했던 것처럼.

내가 여휴에서 하는 일이라곤 내 좀 많이 뽕뽕한 몸매를 조금이라도 숨기기 위해 애써 힘 준 배를 풀어주거나, 살짝 올라가는 옷가지에 보이는 뺨살걱정 없이 기지개 펴는 것 그리고 널부러져서 자는 일 뿐이다. 너무 사소하다고? 나는 그러한 사소한 일들을 여휴 밖에서는 마음 편히 하지 못했다.

나는 모든 공간이 여학생 휴게실 같았으면 좋겠다. 치마를 입고도 아무런 걱정 없이 여름이면 잔디밭에서 뒹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자에 가 완전 쎄다!"란 소리 안 듣고 뽕진머리에(나도 알거든!) 아무대서나 피터지게 공부하고 싶다. 이것은 모든 개인들이 성별과 장



방치 곤란 _ 여학생 휴게실 꾸미기

에 등으로 경계 지어지지 않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자 함이지 과도한 것도 무리한 것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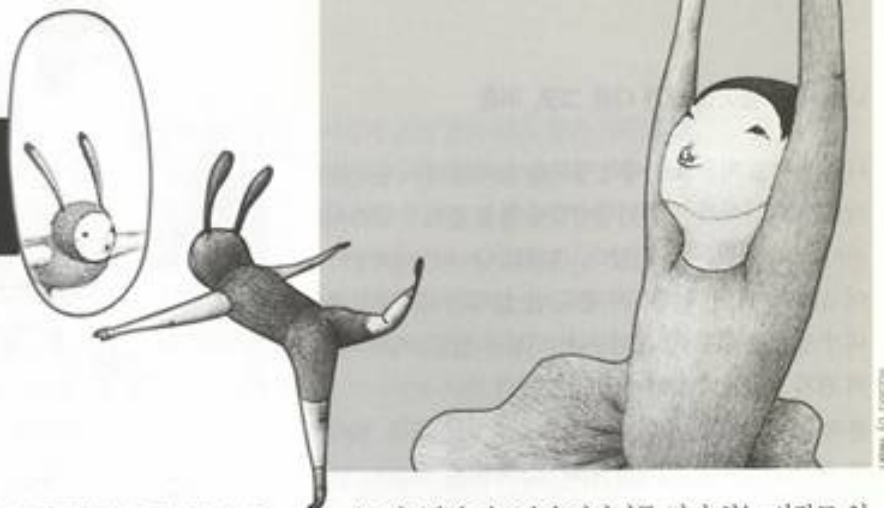
여휴에서 들어갈 때와

나을 때의 모습이 같기를 바라는 나랑, 여휴 그리기

여학생 휴게실에서 뒹굴다보면 오자마자 구두부터 벗어버리는 분, 치마길이가 뭘 상관이리오- 쇼파에 벌렁 누워 자고 있는 분, 음악 들으며 뭘가 영감이 떠오른 듯 무언가를 갈겨쓰고 계신 분, 그 밖의 모든 분, 분, 분들이 계시다. 그곳은 누군가에게 숙소, 독서실, 다시 말해 일상의 공간이다. 그리고 그곳은 여성으로 살아가는 내 일상과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따끈따끈한 가능성이 피어나는 공간이다. 우리에게 어떤 공간, 어떤 소품이 필요할까? 나를 곤란하게 했던 반방과 대학공간을 벗어나 내가 바랐던 여성주의적 공간을 여휴에 만들어보자. 완벽하진 않지만 '평범'한 그곳, 내가 편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자. 아, 졸업하고 여휴가 그리워지면 어쩐다? ■

by_배이

소외 곤란 나를 응원하기



응원하기

- 초등학교 시절 청백전 계주할 때 정글집에 혼자 올라가 우리 팀이 이기기를 마음 속으로 응원했다.
- 처음 친구들 앞에 나가 발표 수업을 할 때 내가 떨지 않고 잘하기를 응원했다.
- 한일전 축구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응원했다.
- 운동회 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경기에서 이겨서 기뻐하기를 응원했다.
- 수능보기 100일전 날, 친구들끼리 수능 잘 보라고 한마디씩 하여 응원했다.

나에게 응원은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나온 기대와 희망을 가득모아 건네는 일이었다.

응원하기

아라치 아라초 어찌고 저찌고, 처음 연세대학교를 들어와서 응원을 보았을 때 그들이 쉽게 미치고 즐거움에 겨워하고 서로 무지 친해보여서(지금 생각하면 그런 사람만 눈에 들어왔다) 나도 같이 하고 싶었다. 그래서 같이 했다. (혼자 빼기도 뭐하긴 했지만) 그러나 나의 어설픈 안무와 노래는 나아질 줄 몰랐고 그렇다고 누굴 붙잡고 물어보기도 뭐했다. '미치자 미치자'를 속으로 되뇌며 한10분 열심히 하고나면 몸이 지쳐 대중대중 지도해주는 친구나 따라하며 뛸려갔다. 신촌거리에서 괴성을 지르며 때 지어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건 언제나 어색했고 응원이 길어질수록 힘은 빠지고 머리는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텅텅 비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어딘가에 할 곳은 없었다. 다들 즐거워하

는 것 '같았고',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모르는 사람 투성이에서 불안했던 나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 어색한 느낌을, 내 모난 생각을 말하기 두려웠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응원을 이끄는)반의 중추들과 친해지지 못했고 동아리로 나가 떨어졌다. 거기엔 응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서로 '응원 싫어 싫어' 까대면서 즐거워했다.

평소에(M.T나 술 먹고 나서) 응원을 안 해도 동아리는 재밌게 잘 굴러갔다. 다만 아카라카나 연고전 때 신입생들을 반에 다 빼앗긴다는 이유로 우리도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 응원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 다른 파란옷을 입고 찾아간 연고전에서 우리는 좀 소외된 거 같았다. 수도 적고 특별히 응원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과도한 동작과 과성이 기준이다). 반 옆에 가야 재밌더라 소리도 정말 듣기 싫었다. 결국 응원을 잘 하지 못하면, 체력이 좋지 못하면 아카라카를 가도 연고전을 가도 재밌기는 그런 건가?

응원하기

즐거워야 한다. 다 같이 즐거워야 한다. 못하고 잘하고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다룰 수 있다는 거에 맘 상하지 않고 즐거울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학교를 응원하느라 내가 힘들 필요 없다. 차라리 날 응원해라. 우리 같이 나를 서로를 응원해보자. 유휴~ ■

by_ 오리



포름알데히드 곤란 대안생리대 만들기

일회용생리대, 알고 있나요?

'그날' 마다 몇 개씩 사용하게 되는 '깨.끗.한.' 일회용 생리대. 원래 월경은 그런 걸까? 불편하고 냄새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원래 월경할 자체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일회용 생리대의 화학용품과 반응해서 냄새가 나는 것이다.) 왠지 습습하기도 하고, 가끔 몸에 배기기도 한다. 정말 깨끗한 건지 우린 기본적인 정보도 업체 측의 '제조 비밀' 인지라 알 수 없다. 얼마 전엔 모 일회용생리대에서 포름알데히드도 검출되었다던데, 다른 것들은 안전한 걸까? 탐폰에는 다이옥신도 들어있었다. 잠깐 반짝 뉴스고 신문이고 시끄럽더니 어찌된 것인지 그 이후로는 조용하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월경 때마다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다.

'그들'의 음모에 반대하기

왜 생리대는 눈부시게 새하얗기만 해야 할까? 깨끗하다는 새하얀 생리대는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여성의 월경을 더러운 것, 그렇기에 남들에게 들리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해버려야 할 것으로 만든다. 또한 표백을 위해 쓰이는 알 수 없는 화학약품들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염증, 가려움 등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해로운 물질들이 우리 몸에 조금씩 오랜 세월 쌓여가는 바람에 각종 '여성 질환'의 드러나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편하지 않은 편안함'으로, 자본은 여성들에게서 '자신의 월경'을 알아감으로써 일회용 생리대에 의지하게끔 순환 고리를 만들어 낸다. (일회용 생리대가 몸에 유해하다는데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다른 회사의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전 지구적 자본의 공모는 일회용생리대에 쓰이는 펄프를 위해 '제 3세계'의 자연과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수없이 버려지는 일회용생리대는 수백 년씩 썩지 않아 다시 우리에게 '오염'으로 돌아온다.

나의 월경 - 내 손으로 만드는 나의 생리대!

대안 생리대를 만들어 사용해보자. 처음 만나는 뽕송뽕송한 월경! 알록달록 마음에 드는 예쁜 천으로 만든 내 생리대! (까악) 가끔 조금 귀찮긴 해도 빨래할 때 물에 배어나오는 밝은 빨강은 예쁘기까지 하다. 여자친구들끼리 모여서 한겨울밤의 사랑방처럼, 밤새도록 수다 떨던 수학여행의 기억처럼, 오순도순 나의 월경과 내 몸에 대한 수다도 떨고 뽕뽕뽕뽕하더라도 열심히 바느질도 해보고, 나의 일상을 지배하던 가부장제의 논리를 뒤엎는 통쾌함과 무언가를 함께하는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거란 당신의 기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만날 것이다. (으하하 *~*~) ■

by_ 아이서

마초 곤란 _ 남자친구들의 여성주의 수다

"야, 죽자 죽어, 판~"에서 "여여, 죽여 죽여, 전배" 까지 이 애정 없는 '식어버린 말들'에 묻혀 우리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게 하는 '사랑스런 말들'이 죽어가고 있다. 마초가 곤란한 이유는 그들의 말과 행동 그 자체가 보기 싫은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들의 문화가 다양한 다른 사람들의 문화, 이야기들을 있는 대로 내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저 술 먹고 죽으라니 어차구니없지 않은가.

누구에게나 수다는 필요하다. 마초를 곤란하다고 하고, 여성주의 수다를 떨자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다. 살기 위해서, 그래 살기 위해서다. 이제껏 살아진, 살아져 온 남자친구들을 위해, 우리는 살아있는 수다를 제안한다. 새로운 관계 맺기를 바라보며 모인 우리, 수다 떨자.

여성주의 수다라는 것은 꼭 여성이 받는 억압에 대한 심오한 토론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심각한 분위기에서 엄숙히 죄인이 되어 앉아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다. 나의 이야기를 하고, 너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대화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만하면, 술잔을 들이미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소소하게 주전부리를 남남거리며 나의 이야기를 하면 된다. 누구도 너의 말은 '폭력적 이야' 라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각색되지 않고, 재지 않고, 가오잡지 않고, 그저 흘러나온 이야기라면 말이다.

우리 주변에 흘러서 넘쳐서 나를 잠식시키고 있는 무수한 말말말들을 곱씹어 보자. 그냥 이야기해보자. 아직도 너나 나나 이야기가 고프다. 어떤 영화의 어떤 말들이 불편했다면 말해보자. 이건 아니다 싶었다면 말해보자. 왜? 라고 물어보자. 제발, 우리 이제 옥박지르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 가며 수다 떨자. ■

by_ 나루기 ☆

[폭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춰져 있던 사실을 드러낸, 흔히 나쁜 일이나 음모 따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이른다.

거침없이 폭로전, 이런 곤란한 것들!

폭로해버리기로 했다.

- 한 사회의 가부장성이 나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짓밟고 있다는 것을.
- 지배적인 남성 중심성이 '정상 남성'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짐지우고 있다는 것을.
- 만연해있는 여성혐오가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혐오범죄를 조장하고, 그것은 폭력과 공포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 무신경한 이성애 중심주의가 비이성애자들의 상처를 외면한 채 끝도 없는 소외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 그들의 권력이, 놓치지 않으려는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림 없이 재생산되고 확고해짐에 따라, 변함없이 내 행동을 제약하고 내 생활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폭로해버리기로 했다.

- 지하철에서 양당이를 밀착시켜오던 그 아저씨가 변태라고.
- 남자답지 못한 것을 비웃던 당신이야말로 우습다고.
-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이 성폭력을 조장한다며 생각 없는 말을 내뱉은 그 선배가 어리석다고.
- 호모포비아를 숨기려하지 않는 그 친구가 편협하기 그지없다고.
- 이상한 눈길로 내 가슴을 유심히 보던 그 선생님이 뻔뻔한

성폭력 가해자라고.

- 맛을 안 해서 맛은 거러며 아내 폭력 가해자를 두둔하던 당신의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을 은근히 물어버리려 했던 그 권력자는 쓰레기라고.
- 수업 도중에 농담이라며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썬 없이 내뱉던 그 교수가 나에게, 아니 수업을 듣던 우리 모두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아프고 괴롭던 일들, 찜찜하고 불편하던 것들, 눈물나고 짜증나던 기억들, 다 토해내고 모두 날려버리고 조금이나마 후련해지기로 했다.

그들에 대한 분노에 함께 공감하며, 신명나게 씹자.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어낸 서로를 지지하며 우리들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힘을 받기자. 너와 나의 다르지만 놀람도록 닮아있는 상처를 확인하자. 힘겨웠을 드러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하자. 서로 보듬고, 교감하고, 안심하고, 힘을 내자. 소리쳐 폭로하며 치유의 소통을 만나자. 상처가 아물고 아물어 곤란한 것들이 희미해질 때까지. 행복한 미소가 입가에 걸릴 때까지. ■

by_ 자몽

대학에서 짧은 기간을 보냈지만 이제야 나와 고민거리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 전에 맺었던 관계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주의 공동체라는 '곳'에서 맺는 관계는 기존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처음 내가 대학에 와서 소속된 집합은 '반'이라는 곳이다. 아마 지금 들어온 그리고 이 글을 읽을 새내기들도 절로 소속된 집합일 것이다. 나는 반에서 만난 이들을 좋아했고,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즐거웠으며 이들을 만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했다. 반면 '반문화'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반에 매달려 있고 싶어 발버둥치고 있다. 이런 나를 보면 주변에서 궁금해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반문화'가 도대체 뭐 문제인가 있길래? 그리고 '그렇게 힘든데 왜 반에 매달려? 그렇게 친구가 없어?' 이런...

반이 뭐가 어떤데?

글쎄, 반의 문제가 무엇일까? 처음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저 가끔 툭툭 걸리는 것들이 있었고, 자주 불편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 뿐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내가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느꼈던 감정들이었다. 여성들의 외모를 갖고 순위를 매긴다거나, 포르

노 야동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는 것은 정말이지 어린, 철이 안든 아이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다. 설마 대학에 와서까지도 이런 일을 겪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현실이었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면 웬만해서는 이해하고 고쳐보겠다 하지만 아직도 간간히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이렇게 판을 벌여놓는 사람들이 그나마 나와 동기이거나 친한 사람이라면 충고하기가 한결 편하다. 그러나 학번이 높거나 덜 친한 사람들은 부드럽게(?)말하면 '다 웃자고 하는 건데 뭘 이리 날카롭게 반응하냐'며 그저 뻔뻔해 하고 단호하게 말하면 표정이 확 굳기 일쑤이다. 대학에 와서까지 나이, 학번 때문에 할 말 못하고 부당한 상황을 겪을 줄이야... 내가 너무 큰 환상을 갖고 대학에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쉽게 조정될 일이 이행되지 않음을 지적하는 사람이 문제가 될 때마다 답답함을 금치 못했다. 학번권력, 여성은 배제된 듯한 대화 외에도 집단 위주의 행사진행과 필수가 되어버린 '술 끝까지 마시기'는 적용하기 힘들고 적용하고 싶지도 않아졌다. 술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술자리는 매우 즐기던 나는 어느새 사라지고 이제는 웬만한 술자리엔 기피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집단 중심적인 반의 문화에 적응하기 힘든 게 나 뿐이 아님은 쉽게 알

수 있다. 거의 반에 남아 있지 않은 여자 선배들의 숫자와 그녀들에 대한 반 주축세력(?)들의 반감은 이미 거의 모든 반에서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반문화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대학, 사회 전반적인 문화의 문제일 것이다. 그 간 한국사회 문화의 주체는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반에 남으려고 해?

허다하게 듣는 질문이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반을 그냥 훌훌 떠나면 되지 끝까지 남으려 애를 쓰느냐. 나를 비롯한 여자 동기들은 여자 선배들이 반에 별로 없는 것에 심히 안타까워했다. 생물학적인 성으로 집단을 구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20년 동안 그렇게 사회화된 관계로 현재 대부분의 생물학적인 여성은 여성과, 남성은 남성과 대화기법이 비슷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을 배제하고 가끔은 여성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는 언어가 통용되는 남성들의 네트워크를 보면서 우리는 여자 선배를 '갈구'했다. 그런 심정을 가슴 깊이 느낀 나이기 때문인지 후배들은 그런 감정을 조금이나마 덜 느꼈으면 한다. 꼭 선 후배 관계가 아니더라도 나이차이 좀 감안하고 친구로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일이다. 또한, 남자 선배 혹은 동기들이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대화 판을 벌리려고 할 때 미리 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학번 권력에 익숙할 새내기들은 선배가 먼저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물고 가면 즉각 반응하기 어렵다. 그럴 때 반감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님을 보여주고 싶다. 나를 비롯해 나와 같은 기수의 여자 친구들이 반에 조금이라도 더 남으면 새내기들이 좀 더 편한 분위기로 반 생활을 하고 반문화를 함께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여성 남성 모두 서로 배려하면서 즐겁게 참여하는 반이 되면 누구에게 폐가 가겠는가? (남성 중심적 문화를 답습하던 주체들에게?)

그래서...

그렇다고 무작정 반에 남아서 새내기만 주구장창 기다릴 수는 없었다. 우선 내가 너무 불편했으므로, 전반적인 반의 분위기를 변화토록 하기 위해서, 그 둘을 정도는 만들어 놓고 싶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반 내 작은 모임을 만드는 것이었다. 여성주의에 관심 있고 반에 애정이 있는 친구들과 여성주의를 공부하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다. 아주 작은 여성주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선 모임 안에서 틀을 부수고 있다. 반에서와는 달리 이 소모임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공손히 반말을 한다. 처음 모임을 만들 때 모두 동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학번이나 나이에 얽매는 경우는 없다. 나는 이러한 방법을 새내기들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물론 둘 다 동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테지만... 시작한지 약 6개월 정도 된 작은 모임은 어떻게 여성주의적 시선을 반문화에 접목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 고민 중 몇 개는 일차적인 방안을 찾았고 나름대로 실행중이다. 작은 모임안에서의 소통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려면 반문화와 연결하는 점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구성원 하나하나가 책임감을 갖고 반 활동에서 분위기를 변화시켜야 한다. 아직은 공부하기에도 벅까진 하지만 조그맣게라도 실행해가면서 새내기들이 반에 왔을 때는 과거보다 즐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 많은 선배와 특히 새내기들이 동참해 준다면 반문화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를지 모른다. 원래 한세기였다면 한 반세기 정도로? 대학 내 반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자신의 불편함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면, 또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 실천하게 된다면 이 세상 어느 가부장적 문화에 속해서라도 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반의 '전통'이니, 우리만의 '특색'이니 하는 말로 포장되어 있는 말에 속지 말고 진짜 알맹이를 밝혀내는 데 동참할 새내기 어디 없소??? ■

by. 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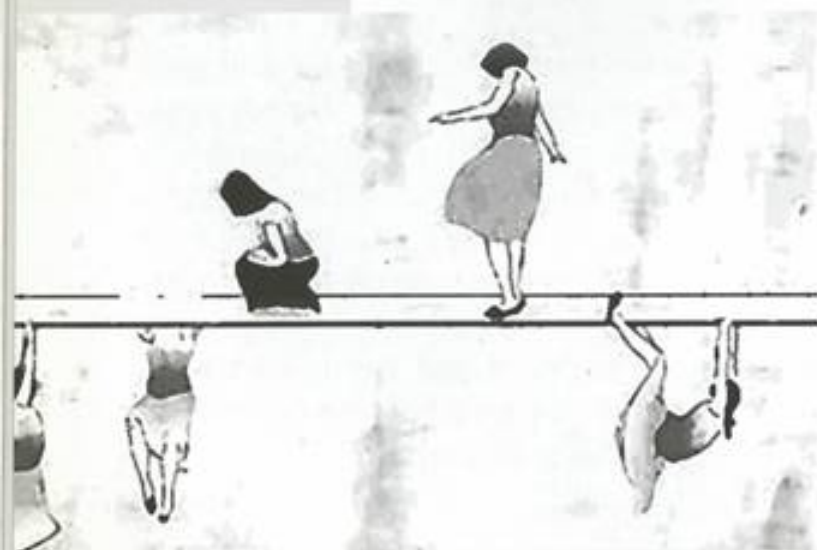
절대 만만치 않은 '반'이라는 녀석에 대한 단상



* '남성 중심적인 문화'는 일반적인 대학 문화가 대부분 남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지는 평등한 관계 맺기!

대학이란 공간에 처음 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의 주요 관심사는 아마 '관계맺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관계 맺기라는 것은 비단 대학이란 공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초/중/고등학교 시절 새 학년이 되고 나면 새로운 반 친구들을 만나고, 누구와 친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부푼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한 기대감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대학은 이전의 관계맺음 이상의 다양성을 갖게 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별, 나이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습게도 남자선배와 여자후배의 관계는 오빠-동생의 호칭으로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자선배들은 자신의 학년이 높은 것을 빌미 삼아 새내기 여학생들에게 말을 '자연스럽게' 놓으며,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접근해 온다. 이렇게 오빠-동생의 관계가 성립되며, 자연스럽게 오빠라는 호칭을 갖게 된 그들은 자신이 마냥 새내기 여학생들의 보호자가 된 마냥 성심성의껏 밥을 사 '주고', 영화를 보여 '주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들어 '주는' 등 갖은 경제적, 물리적 호의를 베풀다. 하지만 이러한 호의가 겉으로는 새내기 여학생들을 위해주는 것처럼 보이거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새내기라는 지위를 가진 채 '오빠'들의 호의와 함께 매우 평탄한 새내기 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새내기 여자후배가 등장했고, 또다시 '오빠'들은 새내기에게 오빠라고 부를 것을 요구하며 그녀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바빴다. 이 때 꽤나 큰 상실감을 느꼈는데, 이는 더 이상 나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는 '오빠'들에 대한 감정이 아닌, 그동안 한 학년을 내가 주체적으로 잘 보내왔는가에 대한 자책감과, 진정한 나의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에서 오는 상실감이었다. 지난 일 년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들의 '도움'에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였다. 그러나 막상 그들의 관심이 다른 새내기 여자후배로 옮겨감에 따라 나는 그동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1년간 방치해 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난 그들의 호의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오빠'라는 호칭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빠-동생이라는 관계를 맺음으로서 나 자신이 평등하지 않은 위치에 놓임을 당연히 받아들였으며, 주체로서의 나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오빠-동생의 관계에는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일까?

오빠-동생이라는 호칭을 생각해보자. 남성 중심적 사회이자, 남아선호적인 우리나라에서 '오빠'라는 호칭이 갖는 의미는 가정을 지켜나갈 사람이자, 부모님의 대를 물려받을 집안의 대들보이다. 그리고 여동생은 그러한 오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은 포기할 줄 아는, 혹은 오빠에게 무엇이든 양보를 해야 하는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빠'라는 호칭으로 불리길 바라며 새내기 여자후배들을 연애대상으로 상정한다. "오빠란 말이 더 친근해 보이잖아."라는 이유는 '친밀감'이 아닌 연애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연애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연애관계에 있어 오

빠-동생의 관계는 결코 상호존중이 가능한, 평등한 연애관계가 될 수 없다. 오빠-동생의 관계에서 시작된 연애는 남성 중심적인 각본화된 연애의 루트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오빠-동생이라는 관계는 결코 평등한 관계라고 볼 수 없다.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평등함이 아닌, 자신이 좀 더 약자이며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단순히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오빠-동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굳이 그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간의 호칭이 그 관계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함을 생각해 보면, 평등한 관계 맺음을 위해 '오빠'라는 호칭 이외의 대안적 방법*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무작정 오빠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많은 새내기 여학생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도 모른다. 그만큼 '오빠'라는 호칭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정도로 우리의 생활에 깊게 파고들었으며,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간의, 또 선배와 후배간의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평등한 호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빠'라는 호칭이 갖는 일상의 권력을 탈피하여,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는 노력을 할 때, 대학생활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게 되지 않을까. ■

by_ 라이

* 예를 들어 여성주의 관에서는 서로의 별명을 지어 부름으로서 평등한 관계 맺기를 하고 있다. 또한 FM이라는 문화를 이용한 자기소개보다,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별명으로 소개를 하는 등의 방법을 쓰는 번 공통점도 있다.

안녕, 공동체



여기서 어떻게든 비비적대야 하는걸까?

어느 단대의 새내기나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학내 구성원들과의 만남이란 비슷할 것이다. 생전 처음 보는 율동과 함께 특정 학교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신촌 한복판에서 소리높이 부르는 응원, 밤새도록 마시고 취해서 서로 망가지며 친목을 도모하는 술자리, "우리들이 다 알아서 해줘" 식으로 고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고스란히 물려받으려는 선배들의 지도까지 한가지 패턴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한 문화 사이에서 남성중심성이나 과도한 나이/학번 권력에 기반한 폭력을 발견해 불편하기도, 그저 내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 끼지 못하면 대학생활 내내 아웃사이더로 지내야 할 것만 같은 은근한 불안을 지닌 채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이미 반 문화에 편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술이나 응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심지어 그런 문화에 부담을 느끼는

여학생들이 술을 떨어뜨려나가지만, 반에서 목소리 좀 큰 선배의 "너네같은 애들 때문에 반이 망하는거야" 한마디면 숙연한 자세로 자책모드 들어가 이전처럼 응원과 술로 뭉치는 반 문화의 부흥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심지어 술을 잘 먹고, 응원을 잘 하고, 목청 터져라 FM을 잘 하는 등 '들어대기'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문화가 이미 구성되어있고, 그에 자신을 끼워맞추기를 실패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서서히 도태되어 "반활동을 제대로 안 한다"는 비난을 얻기 일쑤다.

특히 여성주의자는, 아니 적어도 여성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의 공동체에서 살아남기란 고난 그 자체다. 공동체가 작용하는 방식이나 놀이문화가 성차별적이거나 여성 배제적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예민하다는 등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다는 등 함부로 넘겨짚는 막말을 듣게 되고, 그런 충들이 싫어서 입다물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 리 없어 스트레스가 밑에서부터 콧속 찌르고 올라와서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하여 명상이라도 배워야 할 것 같다.

조금은 다른 비밀 언덕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기댈만한 공동체와 소속감은 필요하다. 자신이 하고자하는 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에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힘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달려라 하니처럼 이 악물고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를 부르짖으며 혼자 달리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다.

내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허락된 선택지가 현재의 일방적인 하나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학내의 무수히 많은 공동체들에 편입되거나 도태되거나의 두 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눈을 돌리면 그들만의 리그 바깥에는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내가 겪은 여성주의 공동체도 그 중 하나다. 그것의 성격은 개인이 어떤 정치성과 정체성과 사고를 받아들이고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른 공동체를 꿈꾸는 것은, 결코 기존의 공동체에서 잘 노는 이들보다 열등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을 행복하게 할 가능성을 찾아 내려 노력했을 뿐이다. 그것은 누군가가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각각이 대등한 위치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대안 공동체라고 선진적이거나 우월하지도 않다. 그저 조금 다른 상상력이 발휘되었다는 특징이 있을 뿐이다. 내가 서 있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여성주의를 열쇠로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의 범주를 확장시킨 이들이다.

생활 자체가 운동의 연장이다.

내가 아는 여성주의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자. 여성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동료를 찾는 사람들, 어쩌다보니 여성주의자가 된 사람들,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어 공부해 보고자 하는 호기심에 발걸음을 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게 외부에서

보기에 정확히 누가 소속인지는 몰라도, 많이들 마음에 안 들어하며 어떻게든 흉을 잡아내려 관심을 기울이는 총여학생회의 실체다.

우리는 상대방의 학번과 나이를 잘 모른다. 서로 별명을 부르고 쌍방의 동의 하에 자유롭게 말을 놓는다. 학번의 높고 낮음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사회적 권력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다. 각자 자기가 물리우고 싶은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긍정하며 부른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담아 반말로 대화한다. 나이가 많은 친구에게 느긋한 시선과 함께 "선배야"하고 길게 놀이며 둘러보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장난질 중 하나다. 대외적으로 실명을 써야 할 때에는 보통 양성을 쓴다. 페미니스트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살 자체가 운동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를 더욱 자신의 정치성에 부합하도록 바꾸어나가는 작업에 게으르지 않다.

우리는 자신을 억압하는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폭력이지 않기 위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함께 공부하고 고민한다. 그러다보니 일방적으로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남자 선배에게 버럭 문제제기를 할 힘을 얻은 사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아 괴롭던 자신의 성적체성을 긍정하게 된 사람도 있고, 한두개 지키기도 힘든 다짐을 수백개씩 되뇌이게 된 사람도 있다. 그 중에 매일매일이 깨달음이라 여성주의 자체에 고마움을 느끼는 나같은 사람도 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가부장성의 폭력에 대항하는 것은 언제나 까칠하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를 지지하는 이들과 함께 입을 모아 이야기하기에, 그것은 조금 더 수월해진다. 가열찬 세미나를 마치고 편담을 만들어 먹으며 각자 자기 단대에 서식중인 성폭력 교수들 이야기를 풀어놓고, 그들까지 씹어먹을 듯이 열렬히 규탄한다.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마초적인 권력에 함께 분노하고 어떻게 문제제기하면 만족스

러울만큼 잘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한다. 애들은 모여서 허구한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앉았다. 서로는 서로를 지지하고 힘을 보태준다. 거기에서 자신을 긍정하는 힘을 발견하고 키워간다. 총여학생회실 안에 가득차 있는 페니지의 기운이 눈에 보일 듯, 손에 잡힐 듯 하다.

피터지게 싸운다. 그래도 좋낸다.

그렇다고 이들의 관계가 평화적이고 목가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이 아해들 어디서 격투기 좀 배우다 왔는지 전투력도 높고 독심도 좋다. 일하다가 싸우고 싸우다가 배고르면 밥쳐먹고 밥쳐먹은 것 때문에도 싸우고 그러다가 술쳐먹고 술쳐먹다가 싸우고 싸우다가 술쳐먹고 쉬어가며 싸우고 싸우다가 쳐자기도하고 이젠 그냥 일상적으로 싸운다. 심지어 서로에게 공해있기도, 애증관계이기도, 은근 시샘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담아두기도 한다. 그런데도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던 편안함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모두 여성주의에 기반하여 사고하지만 너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른 정치에 대하여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했거나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등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이러한 원칙과 그 원칙을 상대방과 공유하고 있다는 신뢰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즐거운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과 상대방이 떠돌고 있는 이야기가 자신을 더 좋은 방향으로 고양시킬 것을 확인한다. 그러한 신뢰는 사랑을 낳고, 우리는 사랑하기에 끈질기게 붙어서 쳐싸워댄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고 싶어 하거나 가까이하기 힘든 것이라고 느끼는 여성주의가 우리에게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근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매개가 된 것이다.

이들은 일년에 세 번, 네 번씩이나 행사를 기획해 대고, 다들 할 수 있는 만큼, 원하는 만큼 참여한다. 마음 좀 급해질 즈음엔 일주일에 세 번씩 얼굴 보며 회의하고,

별곳이면 밤새워서 같이 실무에 버닝하기도 한다. 징그럽지도 않은지 일 끝난 시험기간에도 총여실에 오고록히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는 척을 한다. 이렇듯, 신기하게도 공동체는 잘 굴러간다. 하기사 당연하다. 여가야말로 우리의 비빌 언덕인 것이다.

달라지기, 그 무한한 가능성.

총여학생회에 대한 이야기만을 너무 많이 중구리장창 써내린 듯 하다. 내가 잘 알고 겪어 본 대안적인 공동체가 이곳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어 총여학생회 소개글처럼 보이게 된 것은 부끄럽지만, 웅원 문화나 엄격한 선후배관계 없이, 대안적인 관계맺기와 소통으로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단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이 공동체의 일상을 드러내어 보이기를 택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로 오라거나, 이렇게 공동체를 개혁해내라고 종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기존의 것과는 다른 방식의 문화와 소통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던지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즐거운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꾸리기 위해 그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끝도 없이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나에게 맞는 공동체를 찾는 과정이건, 내가 원하는 공동체를 꾸려가는 과정이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는 일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불편함을 감내하며 쓴 웃음을 지은 채 견딜 수만은 없다. 그들이 정해놓은 경계 밖에도 비빌 언덕이 있고, 그들이 정해놓은 방식 이외에도 공동체의 존재 양식을 각자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다. 색다른 가능성을 점치는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은, 기존의 공동체에서 갈증을 느끼던 이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것이다. 그들만의 독주를 흔들어 내자. 행복해지지는 욕심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다. ■

by. 자랑

이건, 어쩌면 사랑이구나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 남성 페미니스트 말풀기

살면서, 어쨌든 이젠 사랑이구나 싶은 것들이 있다. 단지 세상에 매뉴얼화 되어있는 이성애의 그런 감정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 힘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지지해주고, 그것들을 통해 그저 피 토하며 살면 내가 나의 홀러감을, 이야기들, 감정들을 토해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용솟음치던 기운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아 이젠 어쩌면 사랑이구나 싶다. 그래서 그런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전히 많다.

내가 느끼기에 남성 페미니스트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은 인간으로써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글을 써내야하고, 말을 토해야 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남성'과 '페미니스트'라는 단어의 조합이 '나'라는 사람을 너무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남성과 여성주의라는 두 가지 단어의 만남이 주는 이질감은 나를 항상 고민하게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다. 여성주의와 남성이라는 단어가 함께 놓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력의 부족은 여성주의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함께 '여성주의=반남성'이라는 등식을 쉽게 성립시킨다. '여성주의=반남



'나는 너를 이해해.
어쩌면 나는 지금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아.'

성'이 아니라, '여성주의=반남성주의, 반가부장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남성과 여성주의자라는 두 가지 정체성은 나에게 있어 분리되거나, 대립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나는 남성이고, 여성주의자다. 생각보다 너무나 간단명료하다. 나는 어쩔 수 없는 마초인가 라는 문구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준 여성주의, 여성주의 언어, 여성주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것은 이제 나에게겐 치유이자, 자기소개다.

처음 여성주의를 공부할 때, 나의 키워드는 '깨짐'이었다. 내안의 남성성을 폐기하고, 부정하는 것이었다. 끊임없이 깨지면서, 나는 많이 성장했지만 그러면서도 이러한 성장이 가지는 한계도 함께 가져갔다. 더 이상 깨지기도 싫고, 깨질 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나는 굉장히 무서웠는데, '내가 전방적진건가?' 라는 물음과 동시에

‘좀 건방지더라도 이제 싫어’라는 생각이 물씬 들면서, ‘더 이상 클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나에게로의 비판을 받아 들고, 계속해서 달궈내야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솔직히 말해서 반복되는 ‘성찰 아닌 성찰’과, ‘성찰해야 한다고 강박하는 나 자신’에 지치는 때가 많았다. 하지만 여성주의가 주는 에너지는 나를 그러한 압박과 지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단순한 페미니즘 이론이 아니라, 여성주의를 통해 만난 공동체, 친구들을 통해 나는 오히려 남성이기 때문에 갈혀 있어야 했던 답답한 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아무리 생각해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남성으로서의 나를 가둔 가부장제의 틀이, 여성들의 그것보다 깨기 쉽고, 시시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틀을 깰 수 있는 힘을 여성주의가 주었다는 것, 그것은 그 누구의 힘에도 비하여 못하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될 수 없는 나의 소중한 경험이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환상적이었다. 나에게로의 비판 뿐만 아니라, 나에게로의 신뢰가 ‘꽃피면서’ 나는 더 이상 ‘계집’에의 억지 욕구가 아니라, 나의 언어가 만들어갈 어떤 것들에 대한 고민과 욕구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내가 제일 처음 나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고민되는 것은, 나는 어디까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남성이기 때문에 결코 공감할 수 없는 어떤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 ‘남성이지만, 나 다 이해해!’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이다. 그녀들의 감정, 생각들에 대한 지지를 넘어선, 온전한 이해와 공감을 갖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역시나 오만이다. 한 밤중에 여성이 혼자 택시를 탔을 때 느낄 수 있는 공포, 그런 것들은 도대체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다. 그냥 아저씨가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무서움과는 차원이 틀리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음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남성이어서 공감할 수 없음을, 그 경험과 공포를 느낄 수 없음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 그러한 분노가 거창하게 말하면 가부장제를 흔드는데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제 역할이다. 나는 남성이지만 너를 이해해, 나는 남성이어서 너를 이해하지 못해. 둘 다 바보 같다.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는 너를 이해해. 어쩌면 나는 지금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아.’

여성주의를 만나고 내가 가진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언어’를 만들어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들의 마초적 관계 맺기에서는 언어화 되어 있지 않았던 수많은 세세한 관계들에 대한 설명들, 내 감정에 대한 설명들이 가능해지면서, 훨씬 더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스스로도 몰랐던 것, 모르고 싶었던 것, 몰라야 했던 것, 그래서 부정했던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말’이 생기고, 또 긍정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에너지와 힘은 언제나 나를 살아가게 하고, 또 살아남게 하는 원동력이다. 물론 그러한 언어가 없었다고 해서, 내가 ‘못’ 살았던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언어를 갖고 싶어 했으며, 지금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 전처럼 ‘안’ 살겠다는 다짐들이다. 술 한잔 먹자는 말 너무 좋다. 하지만 차 한잔 먹자는 말 하나쯤, 더 가지고 있는게 좋지 않을까.

삶이 고달플수록, 놓아버리고 싶은 것들이 많다. 책도 읽기 싫을 거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지칠 거다. 하지만 그렇게도 쳐져버리는 살 가운데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에너지의 샘이다. 기운찬 천하장사들의 술자리가 아닌, 소소한 일상의 수다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여성주의가 아닐까, 부대끼며 지친 영혼들이 모여 서로를 보듬는 것, 감싸는 것!

나는 말이야, 나는 사랑하며 살 테다. 흘러갈 테다. ■

by. 나루기



19대 총학생회
〈Inside OUT!〉의 색다른 가능성!

내 관심대로
고르는 재미가 있다!
여성주의 운동 team에서
만나요!

많은 관심과 참가 신청을 (너무나!) 기다립니다. ^-^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 운동 team

학내 여학생 휴게실(이하 여휴) 자주 가세요? 어디에 숨어있는지 어디에서 방치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단대 중도, 학관 여휴는 어때요? 여학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꼭 필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학내 많은 여휴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학내 자치 공간 대부분이 여학생에게 편한 공간, 이야기 나눌 공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여휴는 여학생들의 휴게 공간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학생들이 언제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는 여휴의 의미, 여학생들의 소통 공간으로의 여휴의 활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휴는 최소한의 냉난방 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19대 총학생회에서는 복지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에서부터 여성주의로 소통하는 공간으로까지 여휴를 다시 보는 여휴 환경 개선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단과대 사무실, 여학생 차에서 ‘관리’하는 여학생 휴게실의 ‘정지’를 벗어나 ‘이상적인’ 여휴 꾸미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휴에서 펼쳐는 신나는 이벤트, 즐거운 공간 활용을 여휴 개선 운동 team에서 함께해요!

레즈비언 운동 team

여남의 (오직 두 성만이 존재한다는) 성별이론법적인 구분, 이성애만이 정상임을 이야기하는 사회에서 레즈비언은 어떤 존재로 이야기되고, 무엇을 이야기하길 강요받고 있나요? 가부장제 사회의 관념들은 일상에서 사용되며, 동성애자의 존재가 더더욱 비가시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레즈비언의 경우 여성이라는 성별 정체성에 기초한 가부장제 사회의 편견이 더해져 상상하기도 힘든 존재를 만드는데요. 여성으로서 여성을 사랑하는 ‘주체’의 입장에 있는 레즈비언은, 가부장제 사회가 상정한 무성적인 존재, 혹은 남성의 욕망을 충실히 재현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이라는 관념에 반하기 때문이죠. 19대 총학생회는 레즈비언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를 술술이 마수리 풀어내는 레즈비언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내의 성소수자 단체와의 연대 및 지원으로 학내 레즈비언 운동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레즈비언 운동에 함께 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레즈비언 운동 team에서 만나요!

장애여성 운동 team

정문에서부터 학관, 강의실, 화장실, 곳곳의 공간들은 너무나 당연한 듯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계단으로 오를 수 있는 건물들, 여남 구분이 안 된 장애인 화장실, 과연 연세대학교는 누구의 교육을 위해 누구에게 열려있는 학교인가요? 이제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을 위한 운동을 19대 총학생회에서 시작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여성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장애여성은 단순히 장애 + 여성의 이중 억압을 받고 있는 존재일까요? 획일화된 몸의 정상 기준에서 여성임을 강요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장애여성은 이중의 억압을 받는 존재로서가 아닌, ‘장애 여성’으로 존재합니다. 19대 총학생회에서는 학내 장애 시설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하여, 간담회, 영화 상영 등 장애 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풀어낼 수 있는 운동을 준비합니다. 장애 여성 운동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team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총학생회로 연락주세요! 학관 3층 왼쪽 맨 끝 분홍색 문, 2123-3645 inside-out@yonsei.ac.kr

컴투게더

우리는 모여서 잡담을 주로 합니다.

요즘 누가 좋다거나, 어떤 교수가 수업시간에 한 호모포비아한 말을 가지고 잔다거나, 새로운 퀴어 무비 이야기를 한다거나, 경험담을 이야기하거나 합니다. 우리끼리 이성애자인 척할 필요 없다는 게 참 많이 좋지요. (학내 어디서 내놓고 이럴 수 있겠어요?) 잡담 외에도 같이 퀴어 퍼레이드, 다른 학교 성소수자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하거나 웹진이나 신문을 내기도 합니다.

공통점이라고는 비이성애자라는 것일 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보니 가끔씩 사고도 나고 문제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성정체성을 버릴 수 없듯이 일상에서 나를 겁내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컴투게더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 당연히 존재할 '이성애 사회가 재수 없는 당신', '나를 연기하지 않아도 될 친구가 필요한 당신' 함께해요.

www.queeryonse.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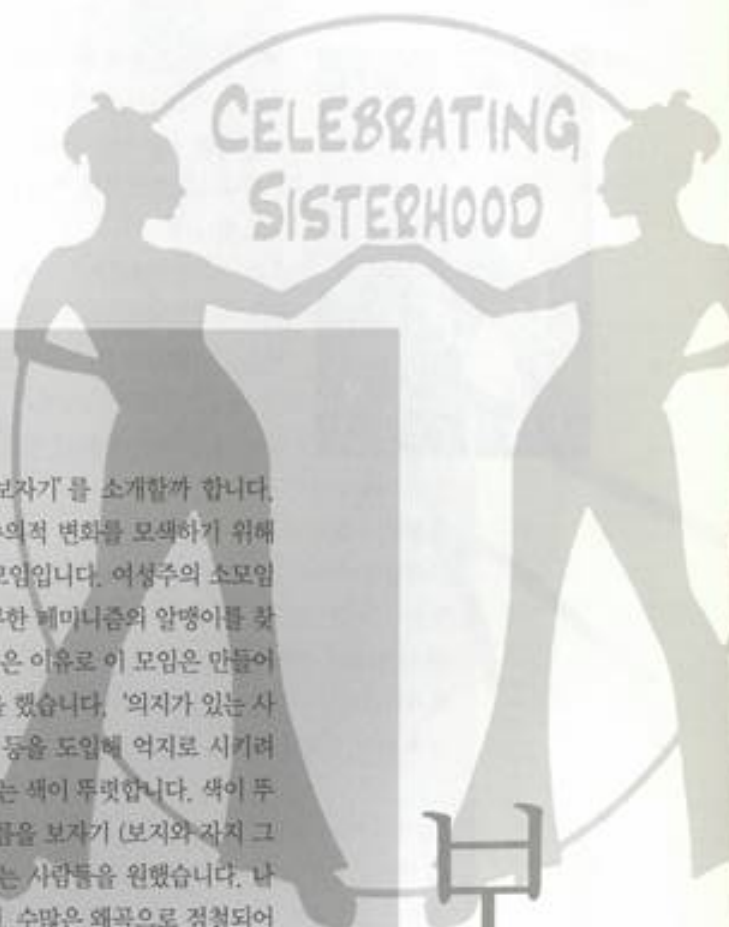
❶ 컴투게더를 가입한다고 해서 아웃팅 당할 일은 없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색이 있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문과대 철학 8반의 여성주의 모임 '보자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보자기'는 여성주의를 함께 공부하고 반에 여성주의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현재는 학회의 성격이 좀 더 강한 소모임입니다. 여성주의 소모임을 만들게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별 소문이 난무한 페미니즘의 알맹이를 찾고 싶었고, 반문화를 기존과 다른 시선으로 보고 싶은 이유로 이 모임은 만들어졌지요. 보자기 첫모임 때 선배 한 명은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꾸준한 활동이 가능하다. 벌금제도 등을 도입해 억지로 시키려 해도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보자기는 색이 뚜렷합니다. 색이 뚜렷함은 의지가 강하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처음 이름을 보자기 (보지와 자지 그들의 이야기)라고 지었을 때부터 보자기는 의지 있는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적인 언어를 감지하기 위해, 수많은 왜곡으로 점철되어진 페미니즘을 또렷이 알기 위해 보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커리를 읽고 세미나를 합니다. 커리는 한 권의 책이 되기도 하고, 영화가 되기도 합니다. 학벌과 나이로 만들어진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보자기 안에서는 서로에게 동의된 낮은 말을 사용합니다. 세미나로만 끝나서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반문화의 여러 면을 모색하여 여성주의 시각과의 접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행동할 수 있는 숭 설 터전이 좀 더 넓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색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친구들과 계속 함께 하고 싶습니다.

보자기



레즈비언의 PC한 살아남기를 모색하는 즐거운 공동체 '숙자씨' (가)



'숙자씨'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ly Correct)을 추구하는 레즈비언 운동 단체입니다. 여성주의를 공동체 구성의 기반으로 삼아, 현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부장성과 남성 중심성에 덧붙여 이성애 중심주의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여성이며 성소수자인 레즈비언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으로서 여성을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개인의 인생을 한순간에 파괴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학 사회는 그러한 폭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숙자씨'는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정체성과 호모포비아, 혹은 아웃팅 위협으로 고민하는 이 땅의 레즈비언들의 일상을 바꾸고자 하는 꿈을 품고, 그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무성적 존재로 규정하여, 레즈비언의 존재를 아예 비가시화시킨 이 사회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냄으로써, 호모포비아 사회에 균열을 내겠습니다. 여성을 누군가의 딸, 며느리, 어머니, 누이, 이성애 관계에서의 애인인 여자친구로만 규정하는 이 사회의 빈약한 상상력에 일침을 가하고자 합니다. 레즈비언의 정체성이 우리를 행복하게하고 있음을 보여, 왜곡된 성적 대상, 구제 대상으로 재현되고 있는 레즈비언의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숙자씨'에서 함께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pclesbian@hanmail.net으로 연락주세요. 레즈비언으로서 고민하고 행복을 구하고자 하는 여러분, '숙자씨'의 레즈비언 운동에 동의하고 지지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숙자씨' 미니홈에도 방문해주세요.

<http://www.cyworld.com/pclesbian>

숙자씨

구공탄



계급적 여성 운동을 향하여 '구공탄'

여성주의 운동의 성과는 무궁무진하다. 성폭력 개념 확장과 각종 여성 관련 법령 제정, 여성의 몸과 주체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 이성애 중심주의와 정상 가족에 대한 문제제기 등등. 하지만 우리가 수혜를 입고 있는 여성주의는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는 직장과 공장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실천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로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여성을 위한 운동을 펼치고자 하는 여성주의는 여성 노동자를 조직해야하며, 조직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여성 노동자가 가정으로부터 부과되는 의무와 저임금의 노동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 여성주의를 접하기도 수용하기도 힘든 현실이 엄존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 이상 한 사람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판매되지 않으며, 따라서 더 이상 여성의 성이 상품이 될 수 없는 사회, 자본주의적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가부장제 해체를 위해 여성들의 단결된 목소리가 전면에 나서는 사회!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공격함으로써 여성 노동자들의 여성주의를 실천하고 여성주의의 승리를 목도하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 그/녀들의 모임이 바로 구공탄이다.

<http://go.jinbo.net/90tan> gugongtan@jinbo.net

그만 곤란하길 바래

만든 사람들

우선 모두에게 사랑을 가득 담은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치열한 글쓰기와 가열한 프로그램 기획을 하는 동안 1년 전의 어느 날을 보내던 내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다. 백장로에서 보았던 새내기OT홍보는 막연함과 두려움, 기대감으로 매일을 보내던 나의 소심함을 던져버리도록 만들었던 것 같다. 주저함과 아של름으로 참여학생화실의 문을 열고, 내 안에서 흔들거리던 여성주의가 어느새 '나 여성주의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만났다. 이제 시작이고, 고민할 수 있게 된 듯하다. 좀, 즐겁다. 이 OT 1년간 기다렸다. 加油! <이상>

멋진언니들과 신나게 놀 준비가 되었습니다. <레이>

나는 말야, 좋아. <오리>

다함께 뽀뽀! <유나>

투투투투투투파파파라 띠띠 사랑해요, 알람가모르갔어요. <너누기>

난 쉬안하고 일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파고 파고 또 파서 글쓰는 어떤 소리 들으며 글 쓰는 것도 좋았고, 아이들이 피폐한 얼굴로 안겨오는 거도 너무너무 좋았어. 난 행복하다. 여들이 감자 카우고 같이 살자. 여성의 빈곤화에 일조하려는 나쁜 자웅이라도 사랑하지? 그치? <자웅>

자료집을 넘기는 이 짐승같은 새벽 5시에 함께 하는 그대들(마음만은 함께하지만, 어디선가 자고 있을 지도 모르는 그대들도 함께 말이지) 나의 사랑이 빠져서 하늘에 올라 여성주의적 세계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그 날까지, 그대들을 사랑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멋진 여성주의 새내기 OT를 통해 살아날거예요! <상어>

벌써 1년은 노래 제목만은 아닌거보다. 여성주의 새내기 OT는 나에게 참 의미가 깊는데, 이 자료집을 보는 함께 만든, 함께 즐길 이들 모두에게도 의미있는 참여학생회 행사로, (inside OUT)의 첫인사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자료집은 새벽을 넘기고, 이제 반짝 떠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구나, 모두들, 고마워요! <우주>

후억... 오늘은 좀 피곤하다. 피곤해도 이곳(총여실 : 주요 서식처에서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피곤하니 원기 맘에 든다. 그래 좋았어, 피곤하게 일하고 피곤하게 쉬고 조용히 숨쉬는 척하고 시끄럽게 놀다가 내일 다시 총여실로 오겠군... ㅋㅋ 인생의 참된것이란... <범범범>

총여에서 만난 누구누구(ㅁ,ㄹㅇ,ㅇx)들이 1년전 새내기 오티 때 만난 사람이란 걸 알았을 때의 즐거움이랑! <베이>

졸업을 앞두고 여성주의 오티를 함께하니 학교가 좋고 직장이 무섭다. 그곳에서도 여성주의자로 아자! <초성>



Speak OUT

거침없이 폭로전, 이런 곤란한 것들!

우리는 기부장체가 관통하고 있는 사회에서 어떠한 여성들과, 혹은 어떠한 여성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었나

여성주의로 함께 하며 서로 믿고 평등하게
나를 내보일 수 있는 공간 완성!

아, 졸업하고 여휴가
그리워지면 어떨까?

나에게 응원해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나온 기대와 희망을 가득 모아
건네는 일이었다.

착한 '오빠'들 덕분에 '작두기'로
아리저리 방황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도 놀고 싶었다.

반문화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지 못했다.
원래 한 세기였다면 한 반세기 정도?

여성주의를 알고 싶어.

목로비행기

- 목로 비행기는 모두가 함께하는 목로전 시간에 함께 읽으며 분노와 지지를 나누는 용도입니다.
- 사회자가 읽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은 '읽지 마세요' 라고 적어주세요.
- 직접 읽고 자신의 강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이름이나 별명을 적어주세요.

Speak OUT

그들만의 독주를 흔들어 내자

상처가 아물고 아물어
곤란한 것들이 화마해질 때까지

주체로서의 나를 잃어가고 있었다.

폭로해버리기로 했다.

나는 너를 이해해.
어쩌면 나는 지금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아.

나를 곤란하게 하던 것들에
안녕을 고할 겁니다.

질문들이 난무한다.
변하다 못해 변변한 질문들.

Speak OUT

거침없이 폭로전
이런 곤란한 것들!

마초를 곤란하다고 하고,
여성주의 수다를 떨자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다.

2007 여성주의 새내기 OT
〈그만 곤란하길 바라〉를 함께 만든 사람들
레이 (간호 04)
자용 (법학 05)
오리 (화학 03)
나누기 (사회학 06)
베이 (사회학 06)
썸 (천문학 03)
초생 (사학 03)
유나 (인문 06)

경계에서 숨쉬는 색다른 가능성
〈Inside OUT〉 19대 총여학생회
우주 (간호 04)
이상 (인문 06)
상어 (물문 05)

〈그만 곤란하길 바라〉 함께 하신 분들
김수진 (신학 05)
아이서 (사회학 04)

〈그만 곤란하길 바라〉 도움 주신 분들
여학생처

